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36주년 기념

고 이태석 신부 유품 전람회

제5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일시 : 2015년 6월 12일(금) 13:00~17:00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인사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은 제3회 졸업생 고 이태석(李泰錫, 1962-2010) 신부님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초 인제대학교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과 함께 고 이태석 신부 유품 전람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회 심포지엄의 주제는 '의사의 삶과 사회: 이타성과 책무성'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오랜 기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해 오신 의사 선생님들을 발표자로 모시고 이타성과 책무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재조명하고,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역량에 대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 고영초 교수님, 부산부민병원 외과 박무열 선생님, 캄보디아 헤브론병원 내과 강재명 선생님, 그리고 부산항운병원 외과 김현태 선생님을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먼 걸음을 해 주신 네 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심포지엄과 더불어 의과대학 내에 '이태석 신부 기념실'을 마련하고 여기에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영구 대여해 준 고 이태석 신부님의 유품을 전시하는 전람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흔쾌히 유품을 대여해 주신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와 양승국 관구장 신부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 톤즈의 '돈 보스코 클리닉'에서 사용하셨던 유품들을 통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백병원에 신부님의 향기와 정신이 앞으로 계속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과 고 이태석 신부 유품 전람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태석 신부의 삶과 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의사 또는 예비의사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6월 12일
인제대학교 의약부총장

이병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36주년 기념

고 이태석 신부 유품 전람회

| 일시 | 2015년 6월 12일(금) 13:00~13:50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로비

식 순

- 개회 및 내빈 소개 교무부학장 **이종태**
- 고 이태석 신부 소개 및 유품 전람회 추진 경과보고 의약부총장 **이병두**
- 인사말 총장 **차인준**
한국천주교살례시오회 신부 **백광현**
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이태영**
- 축사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상학회 이사장 **안정효**
사단법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장호**
인제의대 동창회장 **백민중**
- 전시 유품 소개 인문의학교실 교수 **김택중**
- 전시실 오픈식 / 폐회,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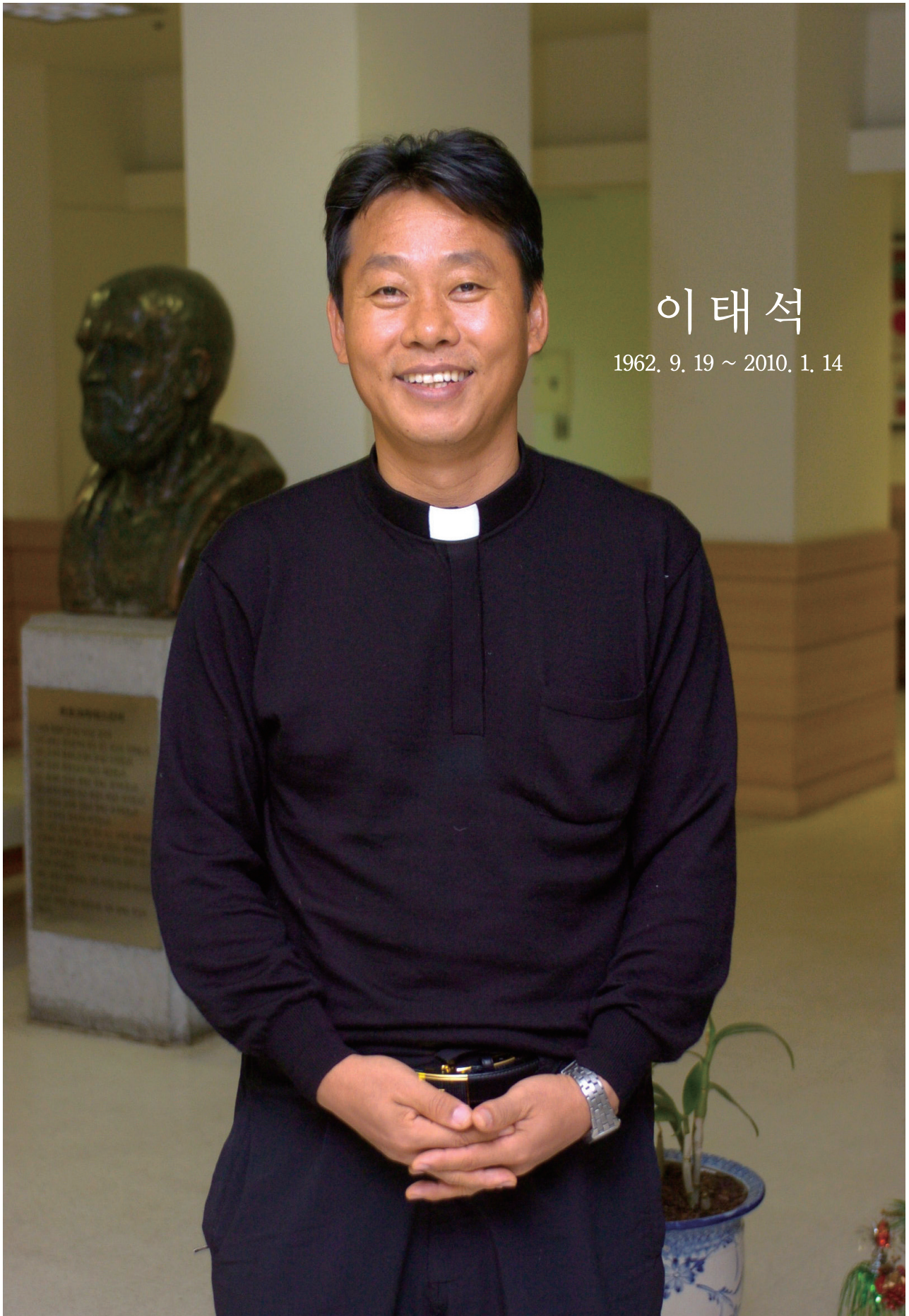
제5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 주제 | 의사의 삶과 사회: 이타성과 책무성

| 일시 | 2015년 6월 12일(금) 14:00~16:50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프로그램

- 14:00~14:20 개회 인문의학교실 교수 **김택중**
 인사말 의약부총장 **이병두**
- 14:20~15:10 의료봉사와 함께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30년 삶 건국의전원 신경외과 교수 **고영초**
 작은 이태석 부산부민병원 외과 과장 **박무열**
- 15:10~15:20 휴식
- 15:20~16:10 속·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캄보디아 헤브론병원 내과 과장 **강재명**
 파란 눈의 의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이타성과 책무성 부산향운병원 외과 과장 **김현태**
- 16:10~16:40 토론과 질문 **고영초, 박무열, 강재명, 김현태, 김택중**
- 16:40~16:50 폐회, 기념촬영



이태석

1962. 9. 19 ~ 2010. 1. 14

이태석

李泰錫, Fr. John Lee Taeseok

의사, 살레시오회 수도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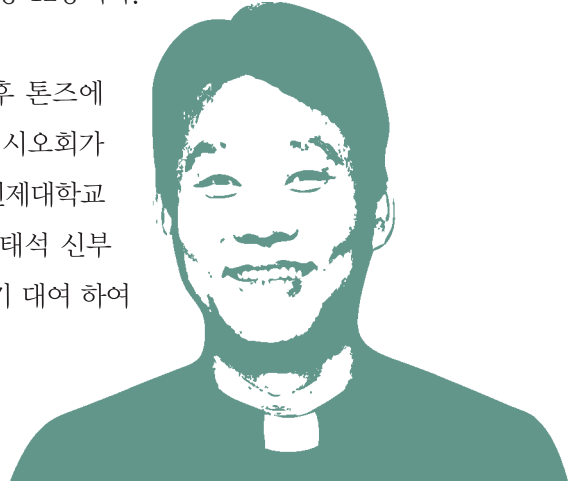
1962년 9월 19일 - 2010년 1월 14일

- | | | |
|------------|-----|--|
| 1962. | 9.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출생 |
| 1975. | 2. | 천마초등학교 졸업 |
| 1978. | 2. | 부산대신중학교 졸업 |
| 1981. | 2. | 경남고등학교 졸업 |
| 1981. | 3.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 1987. | 2.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 1988. | 2.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
| 1991. | 4. | 육군 군의관 전역(대위) |
| 1991. | 8. | 살레시오회 입회 |
| 1994. | 1. | 살레시오회 첫 서원 |
| 1995. | 1. | 서울특별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사목실습 |
| 1996. | 2. |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수료 |
| 1997. | 1. |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유학 |
| 1999. | 8. | 아프리카 남수단 와랍주 톤즈(Tonj) 첫 방문 |
| 2000. | 4. | 살레시오회 종신서원 |
| 2000. | 6. | 부제 서품,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 졸업 |
| 2001. | 6. | 사제 서품 |
| 2001. | 7. |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임상연수 |
| 2001. | 12. | 남수단 톤즈 부임 |
| 2003. | 12. | KBS 1TV「한민족 리포트: 아프리카에서 찾은 행복 - 수단 이태석 신부」방송 |
| 2006. | 1. | 후원모임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결성 |
| 2008. | 11. | 대장암으로 투병 시작 |
| 2009. | 1. | 후원모임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 결성 |
| 2010. | 1. | 선종(14일 오전 5시 35분) |
| 2010. | 1. | 전남 담양군 천주교 광주교구 공원묘원 내
성직자·수도자묘역 안장(16일) |
| 수 상 | | |
| 2005. | 11. | 제7회 인재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
| 2007. | 3. |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 |
| 2009. | 12. |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공동 수상 |
| 2010. | 12. | 제1회 한국방송공사(KBS) 감동대상 대상 추서 |
| 2011. | 7. | 제1회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
| 저 서 | | |
| 2009. | 5. |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생활성서사) |
| 2011. | 7. | 유고 강론 모음집 「당신의 이름은 사랑」(다른우리) |

이태석 신부 기념실 전시 유품

이태석 신부 기념실에 전시된 유품들은 이 신부가 남수단 톤즈의 돈 보스코 오라토리오 내 진료소인 '돈 보스코 클리닉 Don Bosco Clinic'에서 진료 활동을 하면서 2002년부터 2008년 중 사용했던 유품이다. 청진기, 혈압계, 초음파영상 진단장치, 의료용기, 열대의학교과서, 환자노트, 의무기록지 등 총 12종이다.

이태석 신부의 유품들은 2010년 1월 14일 이 신부 선종 이후 톤즈에 그대로 남겨졌으나 2012년 8월 소속 수도회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거두어 그동안 서울특별시 살레시오회 관구관에 보관해 왔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은 2015년 5월 27일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와 '고 이태석 신부 유품 무상 대여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관련 유품 중 일부를 장기 대여 하여 본 기념실에 전시하고 있다.



청진기
stethoscope



혈압계
sphygmomanometer



초음파영상진단장치
portable ultrasono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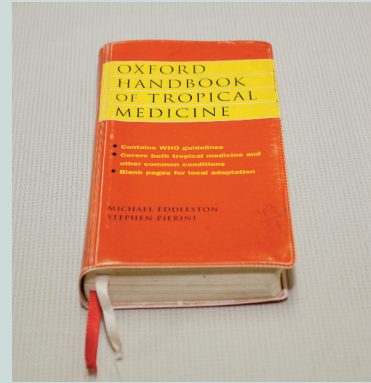
의료용기
instrument tray with l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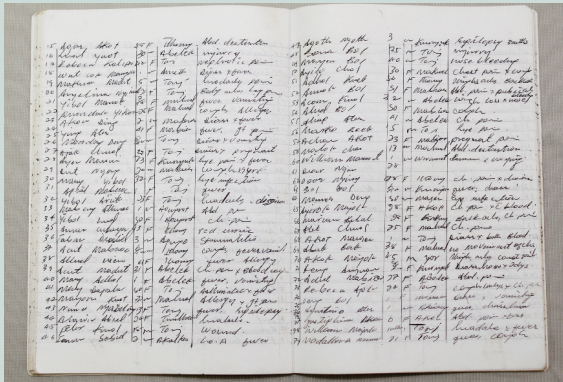
드레싱 솜통
dressing jar, med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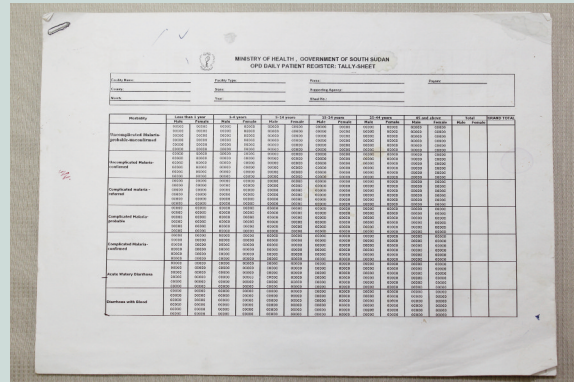
드레싱 솜통
dressing jar, s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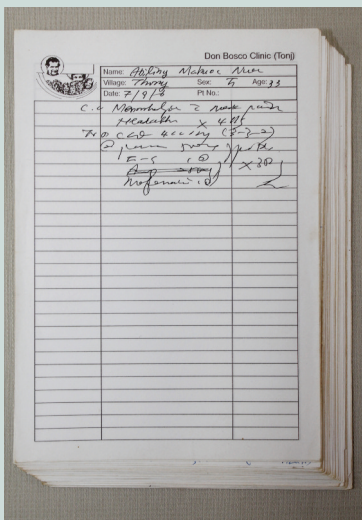
열대의학 교과서
Oxford Handbook of Tropical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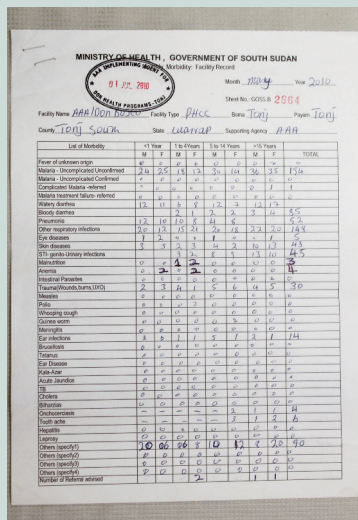
환자노트
patients record, Don Bosco Clinic
2005. 3. 7 – 2006.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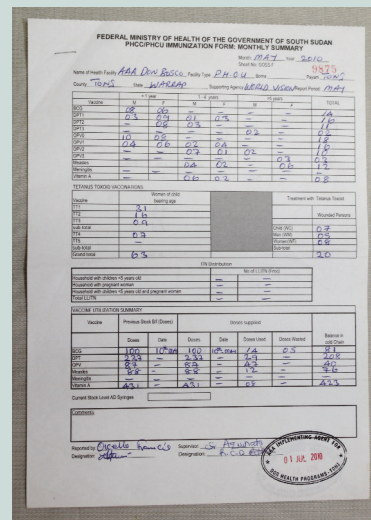
남수단 일별 외래환자 등록표
OPD Daily Patient Register: Tally-Sheet



의무기록지
medical record, Don Bosco Clinic



남수단 월별 이환율 기관 기록지
Monthly Morbidity: Facility Record



남수단 월별 PHCC/PHCU 예방접종 요약지
PHCC/PHCU Immunization Form: Monthly Summary

의료봉사와 함께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30년 삶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병원에서 11년째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근무하였기에 이곳이 낯설지 않습니다. 교수직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1985년 5월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1998년 5월 서울백병원으로 이직하기까지 13년을 근무했으니 올해로 꼭 30년을 세 군데 사립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 신부님과 같이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을 받게 되었을 무렵부터입니다. 수상자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보고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 둘러보았지만 신부님은 아프리카에서 오실 수 없어 어머니께서 대신 상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 저는 저와 인연이 있는 인제대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태석 신부님께서 쓰신 책과 「울지마 톤즈」라는 KBS 제작 다큐멘터리를 보고 신부님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의전원에서는 제가 강좌를 개설한 의료봉사가 주제인 사회의학 프로그램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봉사가 2007년부터 강의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알면 알게 될수록 저는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하여 초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성당 마당에 있던 탁구대가 제 놀이터였고, 형들의 어깨 너머로 외운 라틴어 기도문 덕분에 한글을 겨우 깨우친 초등학교 일학년년부터 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신부님이라는 직업(?)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기에 망설임 없이 1965년 소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신부의 꿈을 무력무력 키워가던 여름방학 중 제 진로를 바꾸게 된 사소한 해프닝이 발생하여 사제의 꿈을 잠시 접고 신일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습니다.

교과과정이 달라 상당히 힘들긴 하였지만 졸업 즈음엔 성적이 향상되어 1971년 서울의대에 입학하였고, 신부가 되려다가 의사의 길로 접어들어 하느님께 대한 미안함을 지울 수 없었기에 본과에 진입한 1973년부터 내 삶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다가 소의

된 이웃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주된 활동인 가톨릭학생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의료봉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배들을 따라 시작한 주말진료는 청계천 철거에 따라 형성된 성남시 주변의 판자촌에서 했는데, 제가 회장이 된 1974년부터 난곡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회사업가와 함께 난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진료를 시작하여 졸업할 때까지 지속하였습니다.

1977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도움으로 국제형제회원들(AFI)이 설립한 전진상의원(시흥2동 소재)에서 매 주말 진료봉사를 하다가 1987년 요셉의원의 설립과 함께 선우 원장님의 부탁으로 전진상의원과 요셉의원을 격주로 수요일마다 퇴근 후에 진료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7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파엘 클리닉이 서울의대 가톨릭교수회와 서울의대 가톨릭학생회 출신 의사들 주축으로 설립되면서 격주 일요일 신경외과 진료를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우리 건국대 학생들과 월 2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42년간 월 3-4회씩 의료봉사를 해 오면서 육체적인 피곤함보다는 봉사를 통한 기쁨과 보람이 컸기에 교수가 된 후에도 진료와 주 2-3회 수술, 학생교육과 학술활동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꾸준한 봉사가 알려지면서 2007년에는 보령의료봉사상, 2012년에는 이태석 신부님께서 먼저 받으신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보다 한 단계 낮은 제2회 국민추천포상 국민포장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장거리의도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저의 보잘 것 없는 봉사의 삶이 이미 과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초

서울의대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현재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 교수
2007년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2012년 제2회 국민추천포상 국민포장 수상
2014년 제11회 장기력의도상 수상

작은 이태석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울지마 톤즈」를 나는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한 번 보았고, 2012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한 번 보았다. 두 번 다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또한 부끄러움이 일어났다. 나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방글라데시에서 10년간 일하였지만, 가족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많은 의사들이 그분과 같은 삶에 감동을 받고 어떤 거룩한 결심을 하지만, 힘든 공부와 삶에 찌들려 살다 전문의가 될 즈음에는 한 가정의 가장 또는 워킹맘이 되어, 평생 남을 위한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대부분은 며칠 의료봉사를 하러 가거나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데에 머문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나? 조금 더 나아가 작은 이태석으로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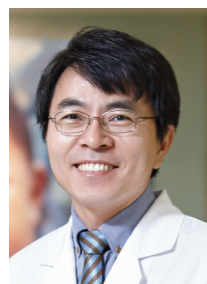
'가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선교단체에서 주나요?' 많은 관심자들의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선교단체에서 나는 스스로 후원자를 모집하여야 함을 배웠다. 후원금은 매월 일정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다. 어떤 의사들은 병원을 공동 개업 하든가 후원회를 조직하여 교대로 파견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심포지엄뿐 아니라 의사들을 세계 오지에 파견하면 좋겠다. 2016년에 백병원에서 모잠비크 잠베지아주에 '모잠비크 중앙병원'을 개원 예정이라니 다행이다. 국제보건을 전공하여 국제기구(예, WHO, UNICEF, UNDP, WB, 적십자)나 한국기관(예, 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NGO 등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는 후진국의 병원에 취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사로 사는 것보다 불안한 삶의 시작이다.

작은 이태석,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 있고 축복 받은 사람이다.

- 1) 어떤 아픔과 장애, 가난과 고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으며, 불안전과 불편함에 대해서 참고 용납할 수 있다.
- 2) 모험심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안전하고 보장된 곳을 마다하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다. 불안정한 생활, 가족, 친구와의 이별과 외로움을 힘들어 하지 않고, 돈에 욕심이 없고, 상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 3)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4)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작고, 사소하고, 볼품 없고, 보상 없는 일이지만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살며, 그렇게 늙어가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다.
- 5) 그런 삶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며 사는 의사들이 많아질 때 의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점차 시기와 질투에서 존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이타적인 의사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밝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박무열

인제의대 졸업, 일반외과 전문의
전 방글라데시 교람톨라 기독교병원장
현재 부민병원 외과 과장
2012년 제1회 이태석 봉사상 수상
2012년 제5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수상

속 ·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의사의 삶이 가지는 직무적 이타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생각하려면 의학사의 고전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제네바 선언」을 살펴보고, 201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14 한국의 의사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라는 직업은 전문직 (profession)이며 이러한 전문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이 주어지고 자율성이 부여되지만, 한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책무가 요구된다.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로서 이타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역할모델이 되는 분이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의 삶과 진료 현장에서 신부님의 삶을 어떻게 배워갈지 각자 고민하고 결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부족하나마, 신부님이 남수단에서 행하셨던 아름다운 의사의 길을 배우고자 캄보디아에서 시도했던 나의 노력을 소개한다.

캄보디아는 인구의 25%가 학살당한 ‘킬링필드’의 아픔을 가진 나라로서 남수단만큼 열악하지는 않지만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의료선교사들은 빈곤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2007년 수도 프놈펜에 헤브론병원을 설립하고 무료 진료를 시작하였다. 병원은 급속히 성장하여 1년에 5만 명 이상의 외래진료를 하고 있으며 7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나는 2011년 1월부터 헤브론병원에서 내과의로 일하고 있다. 올바른 의료윤리를 갖춘 실력 있는 캄보디아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매주 20여 명의 의대생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작년 11월부터 헤브론병원에서

8명의 전공의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아내는 캄보디아인들의 자립을 위해 ‘고엘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다. 고엘 공동체는 일방적인 원조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현지인들의 의존심을 키우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따께오(Takeo)에 거주하는 가난한 농민들이 캄보디아 전통 방식의 천연염색과 베틀작업으로 천을 만들어 옷, 인형, 침구 등을 만들고 이를 팔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의 삶에 향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의사들이 전부 이태석 신부님과 같이 사랑과 희생이 넘치는 위대한 의사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신부님처럼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이들을 먼저 안아준다면 의사의 삶이 가지는 직무적 이타성과 사회적 책무성은 무거운 의무나 책임이 아닌 자연스러운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재명

인제대 졸업, 감염내과 전문의
전 포항선린병원 감염내과 과장
현재 캄보디아 헤브론병원 내과 과장
(2011-)

파란 눈의 의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이타성과 책무성

한국의 현대 의료는 조선 말 개화기의 의료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 놓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당시 조선은 내적으로 당쟁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서, 외적으로는 여러 열강의 위협 속에서 민초들의 삶이 가난과 궁핍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삶이었다. 그 시대에 파란 눈의 의사들이 들어와 전국 각지에서 행한 다양한 봉사과 섬김은 민초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한국 현대의학의 시작을 여는 밑알이었다.

1. 닥터 알렌과 제중원에서 초창기에 일한 서양 의사들

알렌은 한국에 입국(1884년 9월)한 최초의 의료선교사이자다. 입국한 그 해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크게 부상을 입은 민영익을 정성껏 치료해 주면서 왕실의 큰 신임을 얻게 된다. 갑신정변 당시 신변에 위협을 느낀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을 떠났고 알렌도 서울을 떠날 것을 강요받았으나 그는 부상당한 많은 환자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며 서울의 공사관에 머물기를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양의술(현대의학)의 효과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급기야 당시 정부 기관지인 한성순보에서 근대식 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최초의 근대식 왕립병원인 광혜원이 설립된다. 이후 광혜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다. 당시 알렌이 조선왕실에 제출한 설립 계획서에 다음의 두 가지 설립 목표를 역설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양 의학을 한국인에게 전수하는 것이었다. 이후 스크랜튼, 헤론 등이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았다.

1886년 조선을 강타한 콜레라는 서울에서만 6,152명의 사망자를 내었는데, 이 시기 콜레라를 막기 위해 서양의사들은 최선을 다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조선인들의 빈약한 보건 지식과 미신에 메인 당시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서양의사들의 모습은 조선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었다.

2. 닥터 홀과 그의 가족들

서우드 홀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92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고, 어머니인 로제타 홀은 제임스 홀보다 먼저 1890년 내한하여 보구녀관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1894년 평양으로 이주하였으나 청일전쟁의 발발로 서울로 오게 된다. 그러나 3주 뒤 윌리엄 홀은 다시 평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전쟁 부상자들을 돌보다가 과로와 말라리아에 걸려서 서울로 돌아오는 배에서 사망하고 만다.

남편 사망 후 미국으로 돌아간 로제타 홀은 친지·동료·독지가들의 도움으로 남편인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기흉병원을 평양에 설립하였다. 1897년 한국에 돌아온 로제타 홀은 1898년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의학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선의 첫 여성 의사인 박에스터를 미국에 보내 의학 공부를 하도록 만든다. 또한 맹인들을 위한 정진학교를 세워 맹인들의 교육에도 이바지하였다.

서우드 홀은 한국에서 자란 후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역시 의사였던 메리언과 결혼하여 이후 황해도 해주를 중심으로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에 창궐하던 폐결핵의 심각성을 인식한 그는 1928년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인 구세요양원을 설립하여 결핵 환자들의 치료에 매진한다. 그리고 그는 결핵협회를 만들고, 최초로 크리스마스 쉴을 발행하여 결핵 환자들을 돕는 일들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한국에서 현대 의학이 꽃피게 된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의료인들이 가지는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과 헌신은 오늘날의 이타성과 책무성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도 과거 한국에 왔던 파란 눈의 의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선 말 우리 나라에 왔던 많은 서양의사들의 수고가 인제의대의 발전과 고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의료인 모두의 삶에 환자와 사회를 향한 무거운 이타성과 책무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김현태

인제의대 졸업, 일반외과 전문의
 전 포항선린병원 외과 과장
 전 캄보디아 선교사(2007-2014)
 현재 부산항우병원 외과 과장

이태석의 삶

의사이자 살레시오회 수도사제였던 이태석.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그의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Tonj)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의 세례명에 성을 덧붙여 그를 '쥘리(John Lee)'라고 불렀다. 20년 넘게 이어진 오랜 내전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톤즈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쥘리 신부는 자상한 아버지와의 같은 존재였다.

이태석은 1962년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광역시 남부민동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4남 6녀 가운데 아홉째로 태어났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놀이터와도 같았던 집 근처의 송도성당을 다니면서 일찍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활발하고 감수성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갔다. 그에게 성장 과정의 가난은 오히려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하는 종교적 자각의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훗날 톤즈의 가난한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태석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뒤 군의관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그는 안정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가톨릭 사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어머니와 가족의 만류를 눈물로 설득한 이태석은 1991년 살레시오회에 입회하고, 이듬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1997년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위해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로 유학을 떠난 이태석은 자신의 선교지를 찾던 중 1999년 여름방학 기간에 당시 전쟁 중이었던 남수단의 톤즈를 최초로 방문하였다. 톤즈의 열악하고 비참한 모습에 크게 놀란 이태석은 이곳에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2001년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 이태석은 같은 해 12월 처음 결심대로 톤즈로 다시 갔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톤즈에서 차분히 의료와 선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 나갔다.

이태석은 톤즈에서 반경 100 km 내의 유일한 의사였다. 하루에 200명, 많게는 3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한센병 같은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부족간 전쟁으로 총상이나 자상을 입은 환자들도 이태석의 손을 거쳐 갔다. 이태석은 급한 대로 "마른 풀과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움막 같은 집"을 최초의 진료소로 삼았다. 이 초라한 진료소는 2004년 그가 직접 벽돌을 구워 가며 지은 12개의 병실이 있는 시멘트 건물로 발전하였다.

이태석은 살레시오회를 창설한 돈 보스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은 이곳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다.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전쟁 중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초·중·고등학교 11년 과정을 차근차근 꾸려 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태석은 학생들에게 손수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여 주고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음악반은 훗날 35명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부로 성장하였다.

공식 후원회인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가 결성되고, 톤즈의 의료선교와 학생교육도 본궤도에 올라 한창이던 2008년 11월, 이태석은 건강검진에서 예기치 않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다. 투병 중에도 이태석은 늘 톤즈와 아이들을 잊지 않고 걱정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이태석은 2010년 1월 14일 오전 5시 35분 선종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이태석은 48세의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향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다.

글: 인제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 김택중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614-7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TEL: 051-890-6625 FAX: 051-895-1864
홈페이지: <http://med.inje.ac.kr>